

“시설하우스 화재 막아라”...담양군, 예방 시책 연중 추진

농업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불량 전기설비 개선 사전 방지

보조 사업장 소화기 설치 의무화...농업인 화재 안전 교육도

담양군이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시책을 연중 추진한다.

딸기, 토마토, 멜론 등 시설재배 시설하우스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담양은 특히 딸기 재배 하우스 면적이 전국의 6.3%, 도내 56.1%를 차지하는 만큼 시설하우스 화재 발생 비율도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지역 내 화재 120건 중 5%가 넘는 7건이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재배 중인 작물의 출하가 불가능해져 농

민에게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군은 시설하우스 불량 전기설비를 개선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2년부터 시설원에 농가 1020곳의 시설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보완을 안내하고 있다.

또 불량 전기 시설 개선 시 발생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 협력사업과 연계, 시설하우스 분전반 교체에 약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속한 초기진화로 시설하우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난방기와 양액

기 등 전력 소비가 높은 보조사업 시설 설치 시 자동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일상생활 속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농업인 화재 안전 관리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군 누리집 및 군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농업용 시설물 화재 예방과 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화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해 농업인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시설하우스는 환경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발생 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구복규 화순군수·가운데) 위원들이 심의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장흥군 9일까지 롯데아울렛 남악점서 농특산물 특별전

농특산물 판매 확대 업무협약

민요·통기타 공연 등 행사도

장흥군이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오는 9일까지 '설명절 장흥군 농특산물 특별전'을 연다.

장흥군과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최근 '장흥군 주요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날 1일부터 9일까지 특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김대홍 롯데아울렛 남악점 점장, 정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간소화해 소비자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설명절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관은 롯데아울렛 남악점 1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판매관에는 김, 표고버섯, 한우삼합 꾸러미, 육포 등이 전시·판매된다. 이곳에서는 민요, 장구,



김성(왼쪽 네 번째) 장흥군수와 김대홍(왼쪽 다섯 번째) 롯데아울렛 남악점 점장 등이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최대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롯데아울렛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

화순군, 40세대 78명 기초생활보장 신규 결정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화순군이 올해 40세대 78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연간 통합조사계획 타당성 ▲기초 생활수급 신청 조사 중인 11세대에 대한 가족관계 해제 인정 여부 ▲2024년 자활 지원계획 수립 타당성 ▲2024년 자활근로 연장 참여 대상자 적정성 여부 등 4개 안건을 심의해 승인 의결했다.

화순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 6% 비중인 모두 3700여 명이 등록됐다.

화순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라 화순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부군수와 4명의 외부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기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생활이 어려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보호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올해는 40세대 78명에 대한 보호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인 구복규(화순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부양 거부 기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선정 기준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변의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이전 이주민 대책 요구

신광면 주민들 7차 보상협의회

합평군 신광면 주민들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합평군은 최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한 7차 보상협의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를 오는 2027년 말까지 합평군 신광면 일대로 옮길 계획이다.

이날 보상협의회 회의에는 보상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합평군은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이주민 주민소속사업에 대한 검토 결

과를 설명하고, 지난 6차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보상 관련 논의를 했다.

주민 대표 위원은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 중단 ▲군관리기체계화 실시설계인가 신청 때 공청회 개최 ▲축산·수목 등 감정평가 때 전문가 참여 ▲토지·물건 조서, 감정평가 세부내용 공개 ▲손실보상 미협(미계약) 건에 대한 재평가를 국립축산과학원 측에 요청했다.

임만규 합평군 부군수는 “용역에서 발굴된 태양광 사업, 비닐하우스 분양·임대 등 이주민 주민소속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며 “이주민 지원대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나주시는 올해 초 모집 공고를 통해 공급 업체를 접수 받았으나 신청이 저조해 다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품목당 공급 업체 수를 3곳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재공고에서 해당 제한을 없애 신청 기준을 완화시켰다.

나주시 답례품은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를 비롯해 쌀·잡곡, 한우·돼지고기, 속성홍어와 같은 농축산물과 나주곰팡, 배즙, 각종 장류, 나주배짬뽕 등 가공식품 등 총 3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 모집 공급 업체는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 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접수기간 내 신청 정책홍보보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모집 공고를 끝낸다면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업체 정차도 및 신뢰도·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계획·수행능력 ▲정체성·우수성 등을 종합 심의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청자축제 기간 상품권 2억원어치 쏜다

축제장·강진읍시장 2곳

구매금액 20% 4만원까지 환급

강진군이 제52회 강진청자축제 성공을 위해 축제기간인 오는 23일부터 3월3일까지 10일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체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1인당 당일 소비금액 5만원 이상은 1만원, 10만원 이상은 2만원, 15만원 이상은 3만원, 20만원 이상은 4만원에 해당하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증빙자료는 '카드결제 영수증'만 인정되고 강진군 내에서 소비된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며, 관광객·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상품권·현금영수증, 제로페이·착 모바일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고 30억원 이상 매출가맹점 영수증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민간여행 사전 예약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벤트 기간동안 1인당 1회 지급 가능하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2곳으로 청자축제장 상품권 교환 부스와 강진읍시장 종합동 내이다.

상품권 부스 운영시간은 23일부터 3월3일까지 10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의 성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5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 “이벤트를 통해 청자축제 기간 행사장과 강진상권이 쌍끌이로 활성화돼 강진 경제에 활기가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사과즙 전국 1300여 푸레쥬르 매장에서 만난다



씨제이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 직원이 새로 출시한 장성사과즙을 선보이고 있다.

씨제이푸드빌과 상생발전 협약

장성의 대표 특산품인 사과를 전국 1300여 개 점포를 지닌 '푸레쥬르'에서 만난다.

장성군은 장성 사과를 사용한 '장성사과즙'이 씨제이(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빵 가게 '푸레쥬르'에 납품된다고 5일 밝혔다.

장성사과즙은 장성군이 씨제이푸드빌과 지난해 맺은 '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장성 새싹삼을 넣은 닭갈국수를 출시하기도 했다.

푸레쥬르 장성사과즙은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순수 사과즙으로 만들었다.

장성은 축령산, 백암산, 불태산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한다.

장성 사과는 전국적인 인기를 더하고 있으며, 장성군은 농촌진흥청 '탑푸르트 사과 재배단지'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장성군은 서울 남산 엔(N)서울 타워에서 만찬 행사를 열고 장성 사과를 포함한 지역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사과즙 제품 출시가 장성사과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CJ푸드빌과 함께 장성 농산물 홍보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인구 늘리기'...목리·오산지구 신규마을 2곳 조성

주택단지 귀농·귀촌인에 분양

강진원 군수 현장 추진 상황 점검

강진군이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올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를 신규 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원 강진군수가 강진읍 목리지구, 군동면 오산지구 일원 신규 마을 조성 예정지를 찾아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강진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50세대 대규모 주택단지인 임천지구 조성하고 함께 20~30세대 소규모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강진군은 타당성 검토와 주민·토지소유자 설명회 등을 거쳐 소규모 신규 마을 대상지로 11곳을 발굴했다.

올해는 주민·토지소유자의 사업 호응도 등을 고려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가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진읍 목리지구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강진군은 진입도로와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군동면 오산지구는 강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최근 신규 마을 조성 대상지인 강진읍 목리지구를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현지(換地) 방식으로 조성, 분양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신규 마을을 만들고 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이 조성한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 마을은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분양되기도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신규 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공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